평등한 공론의 장 'Good' … 피드백 있어야 발전

[점검] 100인 대중공사 3년, 성과와 과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5년 1월 조계종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출범 만 3년을 맞았다. 100인 대중공사를 주관하는 백년대계본부는 올해 △사회 △미래 △공동체 △정체성으로 분야를 나눠 대중공의를 수렴해 집행부에 전할 방침이다.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역시 종단 운영기조로 '대중공사에 입각한 종단 쇄신'을 강조한 만큼 대중공사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3년간의 100인 대중공사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정리했다.

'현대판 결집' 소통문화 확산

100인 대중공사는 첫해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이벤트'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지만 점차 자리 잡아가며 교계 소통문화 확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승속과 지위, 나이를 떠나 모두가 평등하게 논의하고, 집단지성의 안목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전국에 확산됐다. 대중공사 문화는 2015년 4월 전북불교계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 창원 등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의성 고운사는 도청 포교당 건립을 위해 대중의 지혜를 모았고, 순천 송광사는 대중수행처 건립 불사에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불교 현안 해결에 대중공사가 활용됐다.

아울러 100인 대중공사는 한국불교 미래를 모색하는 데 불교전통의 열린 광장서 종단 구성원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성찰과 탁마하며 논의결과를 일부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100인 대중공사는 다양한 분야서 논의를 거쳐 집행부에 제안, △사찰재정 공개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승가청규 성안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파동관련 재심호계위원 사퇴 권고 △주지인사고과 사찰운영위원회 반영 △노동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

이처럼 입법 · 행정 등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부대중 조직의 의견이 종단차원의 과제로 도출되고, 종무에 반영되면서 대중공사는 현재 한국불교계 주요 소통수단이 됐다.

제안기능 한계, 미완과제 多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100인 대중공사는 순수하게 '제안'의 기능만 할 수 있어 한계가 분명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특정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다.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100인 대중공사는 승가청규를 성안했지만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시행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결정 무효화와 멸빈 등 사법제도 개선안 마련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100인 대중공사의 총무원장 선거제도 논의는 중앙종회서 '직선제 특위'를 구성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원점 재검토' 중이다. 해종언론 문제와 선학원 대화, 총무원장 선거에 앞선 종단현안 대화의 장 제안도 무산됐다. 이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적 피로도가 높아 위원들의 참석률이 낮아진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계종이 3년간 실시해온 100인 대중공사는 교계 소통문화 확산에 공을 세웠다는 긍정적 평가와 제안에 그쳐 아쉽다는 부정적 평가가 혼재한다. 사진은 2015년 7월 서울 불광사서 열린 5차 대중공사.

'정치적 이벤트' 오명에도
교계 소통문화 발전 기여
사부대중 개개인 지위 떠나
한국불교 미래 함께 고민

집단지성 심도 있는 논의
제안에 그친 사례 아쉬워
향후 권한 확보에 힘 써야

위원회 권위 · 실천의지 관건

따라서 향후 100인 대중공사는 논의결과에 대한 종무 반영을 위한 권위 확보와 종단적 실천의지가 성공열쇠로 꼽힌다. 특히 다수의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제안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는 "대중공사 결과가 아무리 제언에 불과하더라도 종단차원의 무게감 있는 검토와 피드백이 뒤따라야 대중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대중공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의제에 주의하면서 위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대중공사는 사부대중이 모여 미래를 고민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그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종단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동력이 한풀 꺾인 것 같다. 정말 좋은 논의의 장을 살리고, 관망하던 사람도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년대계본부 역시 그간 종단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논의에 그친 의제가 발생해 종도들의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종단서 의제를 공식적으로 제안 받아 100인 대중공사의 권위를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백년대계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분야별로 풀뿌리 대중공사를 실시해 의제를 마련하는 한편, 최대한 논의결과가 반영되도록 집행부와의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 산불 진화… 古刹 영혈사 피해 없어

강원 양양군 파일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10시간에 진화됐다. 화재 발생 인근에 천년고찰인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말사 영혈사가 위치했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1월 14일 오후 7시 53분경 양양군 파일리 인근 주택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산불로 확대됐다가 15일 오전 5시경 진화됐다. 이로 인해 주택 1채와 임야 1.2ha가 소실됐다.

산불진화대와 공무원, 소방대, 군부대, 경찰 등 945명이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야간인 데다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산으로 확대된 불길이 정상을 넘어 동쪽으로 번지면서 영혈사의 스님과 신도 등 3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다행이 산불이 사찰을 피해가 사찰 산림 일부가 불에 탄 것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물적 · 인적 피해는 없었다.

영혈사 관계자는 "영혈사 앞 500m 앞까지 불길이 올라왔지만, 맞바람이 불어서 더 번지지 않고 돌아갔다"면서 "사중 스님과 신도들이 밤새워 문화재를 대피 · 이운 시키고 소방작업을 도왔다. 사찰림이 많이 탔지만, 사찰에는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혈사는 689년(신라 신문왕 9) 원효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효 스님은 686년에 입적했으므로 사찰을 세운 뒤 창건주로 모신 것으로 추정된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가 교회? 십자가 표시 '황당'

종로구청 표지판 오류… "새로 교체하면서 교회와 혼동"

조계종 항의에 전면 교체

종로 한복판, 조계사를 찾아가려고 안내 표지판 약도를 보던 불자들은 당황했다. 조계사가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十)모양의 픽토그램으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조계종측은 즉각 항의했고 잘못된 표지판을 설치한 종로구청은 전면 수정조치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2017년 12월 교체한 관내 보행자 안내표지판 약도 속 조계사가 십자가로 표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계종 기획국장 지상 스님, 사회국장 해공 스님 등은 1월 16일 종로구청을 방문해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1월 18일 기준) 문제의 표지판 십자가 위에는 이를 가리기 위한 스티커가 임시방편으로 붙어있다.

십자가 표시를 한 종로구는 한국표준정보망(KSSN)이 보급하는 공공안내 그림표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사찰과 교회의 픽토그램 혼동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 전면 수정을 계획중이다. 시안을 작업하고 있으며, 날씨에 따라 빠르면 1월 넷째 주까지 교체 ·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종로 한복판, 안내 표지판 속 조계사가 십자가로 표시돼 논란이 일었다.

"文정부, 지난 정권 환경적폐 바로 잡아라"

종교환경회의 기자회견서
4대강 · 설악산 보호 등 촉구

불교 등 5개 종교 환경단체들이 문재인정부 지난 8개월의 환경정책이 '정치적 책임회피'였다고 비판하며 지난 정권의 환경적폐를 바로 잡고 환경 정책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도교한울연대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1월 15일 서울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문재인정부 환경정책 관련 워크숍 · 총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종단 환경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종교환경회의는 4대강, 설악산 케이블카, 핵발전소(원전), 사드를 비롯한 미군기지 환경문제 등 크게 4가지를 지적하며 4대강 재자연화, 설악산 보호, 핵발전소 반대,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설치 불허를 요구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강물은 흘러야 한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기 마련"이라며 "4대강으로 물에 의지하는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 원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천도교 등 5대 종교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서 환경적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총회에서는 종교별로 2018년 사업을 공유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018년 신년사업으로 △홀수 달 넷째 월요일마다 정기 녹색불교포럼 실시 △4대강 버드나무심기 △녹색 사찰 만들기 △숲 체험교육 · 숲 해설가 파견 △산림 복지 전문업을 계획중이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서울국제불교박람회' 3월 29일 개막

2018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3월 29일부터 4월1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조계종이 주최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0곳의 업체에서 488개의 부스를 설치해 7만 1000여명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이란 슬로건으로 제6회 붓다아트페스티벌을 겸해 3월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2018서울국제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동참 업체와 개인들에게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교문화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부디즘어워드' 시상도 진행한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측은 "불교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전시회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覓踈山雲門寺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18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기간 _ 2017년 12월 ~ 2018년 2월 6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예비소집일 _ 2018년 2월 5일(음력 12월 20일) 오후 4시까지
전형일시 _ 2018년 2월 6일(음력 12월 21일) 오전 7시
교 통 편 _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연수교육사항 : ① 4학년 졸업 후 서광스님 '명상 심리상담사 자격증'취득
3)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4)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일진
주지 진광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8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당일접수도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_ 2018년 2월 6일(음력 12월 21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4) 종단 교육연수비 지원 5) 해외 연수비지원 6)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명성
원감 진광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홈페이지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